

## 협희소식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는 RI등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인허가 관련 사항 및 법령사항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은 메뉴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RI등 사용허가 신청 및 신고 관련 사항

민원자료실

- ▶ 민원업무 ▶ 원자력개발 이용 및 안전관리
-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 및 신고

### 기타 참고사항

민원자료실

- ▶ 민원업무 ▶ 민원 FAQ ▶ 방사성동위원소등 인허가 절차 및 사후관리

### 원자력 관계법령 참조

정보자료실

- ▶ 과기법령(법률 : <원자력>원자력법), (대통령령 : 원자력법 시행령), (부령 : 원자력법 시행규칙)

※ 각각의 창에서 관련 서식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문속의 RI뉴스

### 중앙특허기술상 대상에 원자력연구소 박경배 박사

“암, 류머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사선요법의 개발 여지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2분기 중앙 특허기술상 대상을 탄 한국원자력연구소 박경배(54)박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와 관련, 국내외 특허를 8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암 정복에 일생을 걸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방사선 키토산 착물’ 을 비롯, 식도암 치료제, 피부암 패치 등 그가 개발해 특허를 받은 기술들은 모두 ‘세계 처음’ 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이같은 특허들은 모두 방사선을 이용한 것으로 아이디어와 치료효과가 탁월, 암 환자들에게 적지않은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방사선 키토산 착물은 방사선 물질을 함유한 액체로 암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주사할 수 있다”며 “방사선을 외부에서 쏘이거나 정맥 주사를 놓는 기존 방법에서 일어나는 통증·고열 등 각종 부작용이 없다”고 말했다. 즉 암세포 주변의 정상 세포를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액체는 임상 실험에서도 간암 치료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입증됐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제약회사를 통해 간암 치료제로 시판할 예정이다.

취박사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유럽, 중국에도 특허를 출원해 놓았

다” 고 말했다.

그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 발병 부위만 골라 약물을 주사할 수있는 초소형 로봇이 개발되면 이같은 암 치료제의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선 체내 약물전달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0/06/29>

## 원전 주기적 안정성 평가제 도입

과학기술부는 16일 주기적 안정성 평가제도,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허가 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는 정부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을 자체 평가해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 보완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운전정지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에서 법제화해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고리 1호기에 대해 시범평가하고 오는 2002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모든 원전에 적용된다. 시행령에 명시될 평가주기는 외국의 예에 따라 1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확대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생산허가제를 실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AEA) 와의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핵주기와 관 계된 연구개발과 원자력 관련부품 생산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찰 범위 확대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0/06/17>

## 현대중공업, 원자력발전소에 디젤발전설비 공급

현대중공업은 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건설을 추진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디젤발전설비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설비는 7백50KW급 3기로 KEDO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현중은 또 남북경협사업 추진으로 북한내 SOC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만~20만KW급 육상디젤발전설비와 5만~10만KW급 선상발전소를 건설할 수있는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를 바지선에 실어 운용하는 선상발전소는 북한 해안지역에 위치한 공단등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육상디젤발전소는 15개월,선상발전소는 12개월의 짧은 공기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사업 조기착수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0/07/05>